

“부끄럽다” “사려깊지 못해”...청문회서 바짝 몸 낮춘 김부겸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사과 군 복무자 혜택 확대 모색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고, 자신을 향한 지적에는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면서 “당시 저희 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입장 정리를 못 했던 상황며, 그 무렵까지는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아직 내용이 밝혀지지 전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과태료 체납 전력과 관련,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019년 행안부 장관이던 김 후보자가 강원 산불 현장에서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 낙담한 주민에게 상처가 됐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책에 적힌) 글을 썼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성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유언비어성 문제를 조장하는 것도 있겠조”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야당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사회에서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의 지나친 과장”이라고 진단했다.

또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입대차 3법 등을 기립 표결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을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조 의원이 “(여당이) 잘못했다는 말씀이죠”라고 되물자, 김 후보자는 웃으면서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라고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국민의 기대 수준에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수준을 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6일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워런 결정이 났다”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승남 민주 도당위원장, 김영록 지사 비난 왜? 국가도로망 계획안 놓고 “전남도도가 도지사 고향 사업만 챙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안에 김 지사의 고향과 관계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유일하게 포함되고, 김 위원장 지역구 사업이자 공약 사업이 누락되는 게 확실시되면서다.

김승남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안에 장흥-고흥 간 연륙교 사업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5월 4일 심사에서 제외했다”면서 “기재부는 국토 77호선 승격 지정을 추가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재부 심사는 1만5000명이 연명으로 촉구한 국토 승격 의사를 무시하고, 전남도청의 의견만 반영하는 탁상행정의 결과였다”고 했다.

그는 “장흥-고흥 간 국토 77호선 승격 지정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인프라 사업”이라며 “그러나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청은 독단적으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사업을 우선에 둔) 순번을 정해 기재부의 요구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비난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국토부 심사에서 전남

도가 제시한 4개 사업이 모두 국도 승격사업으로 통과된 만큼, 4곳 모두 선정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거나 최소한 임의 선정을 요청하는 게 순리였지만, 전남도는 김 지사의 고향(완도) 사업을 우선 추천했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도 “전남도가 당에 요청하고 부탁하는 사업이 1년에 수십 수백 가지인데, 해도 너무 한 게 아니냐”며 “전남도 정책이나 현안 사업도 입안 과정에서 당과 협의해야 하는데 매번 사업을 정해놓고 도와달라고만 하는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위원장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기재부 최종 결과 발표 이전이라 입장을 내기엔 부담이다.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전남도는 4개 사업 모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둔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사업이 현실화되면, 현재 이동거리 85km는 14km로 단축되고, 자동차 기준 이동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남해-여수-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를 잇는 이른바 ‘남해안 실크로드’가 완성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野’ 부적격 3인 인사청문보고서 난항

국민의힘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는 6일 오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각각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 탓에 줄줄이 무산됐다.

이들 상임위는 다시 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 하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 모두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총을 소집, 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당론을 확정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불응키로 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 전에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주말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줄줄이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민주당도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으로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기 보다는 여론 탐색 등을 위해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법률’ 제정 12일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하고,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ITS가 융합된 종합산업으로, 기존 국내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기술개발·인력양성·수요창출·사업전환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나 미래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률 또한 파편화되어 있다. 이에 산업 통계와 기술현황,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지원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양 의원은 “기존의 기계 중심 국내 중소·중견 부품사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 및 인력 확보, 수익 모델 발굴, 인증 및 납품 자격 획득 등 업계가 독자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재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을) 국회의원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블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주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특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싹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